

집앞 벤치를 책 읽는 곳으로 ▶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기아차 임금협상 이번주 타결될 듯 ▶8

[kwangju.co.kr](http://kwangju.co.kr)

임창용 메이저 리그 성공적 데뷔 ▶14

제19569호 1판 2013년 9월 9일 월요일 (음력 8월 5일)



## 디자인비엔날레 성공예감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6일~11월3일) 개막 사흘째인 8일 비엔날레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주말콘서트 '거시기-줄길링가'에 참여한 시민들이 아티스트 권노해만씨의 '나무 인간' 퍼포먼스를 관람하고 있다. 이날까지 모두 7500여명의 관람객들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다녀갔다. ▶관련기사 2·12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불량식품 뿌리뽑을 예산이 없다

### 정부 별도지원 없이 “식품기금 활용하라”

기금 서울 1032억·광주 73억·전남 52억원

지역 편차 커… 4대 악 근절 ‘부익부 빙익빈’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품안전처는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중요 국정과제인 4대 악(惡) 가운데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지만 광주·전남의 기금 보유액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공약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별도 예산 지원은 않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지역의 기금만 사용하라고 재촉하는 꼴이다.

8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식품의약

■ 시·도별 식품진흥기금 보유 현황[12년]  
(단위:백만원)

시도	기금액	사용액
서울	103,221	17,542
부산	16,208	3,661
대구	16,012	3,086
인천	14,965	1,784
<b>광주</b>	<b>7,302</b>	<b>2,126</b>
대전	10,394	1,235
울산	4,848	1,040
경기	50,503	16,335
강원	7,604	2,289
충북	9,381	3,129
충남	11,515	1,332
전북	13,630	1,758
<b>전남</b>	<b>5,223</b>	<b>1,808</b>
경북	23,474	3,517
경남	26,233	3,506
제주	3,824	924

회의 내용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이 기금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 기금을 사용해 식품업소 위생설비 개선 응자, 집단

급식소 개·보수 응자, 식품위생 교육, 영양관리 조사·연구, 소비자위생감시원 지원, 식품산업 진흥 사업 등의 사업을 활성화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규모가 지역별로 차이가 커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힘들다는 게 지자체의 고민이다. 지난해 현재 광주의 기금액은 73억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4번째로 적었고, 전남도 또한 52억원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 지역의 기금액은 서울(1032억 원), 경기(505억원), 경남(262억원), 경북(234억원), 부산(162억원), 대구(160억원), 인천(149억원) 등지에 비해 부족한 형편이었다. 광주·전남보다 기금액이 적은 곳은 제주(38억원)와 울산(48억원) 뿐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日 8개현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후쿠시마 주변〉

정부 방사능 오염수 유출 대책… 정승 식약청장 “안전 최우선”

정부가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6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더니 특별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승 식약처장은 “외교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이런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며 “일본 방사성 물질 수입 상황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엄격하지만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 조치이며 안전이 최우선이어서 일단 임시적으로 특별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기존에 수입돼 유통 중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은 후쿠시마를 비롯해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현이다. 정부는 태평양 해류 흐름을 분석한 결과 위험도가 높은 이를 8개 현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이 지역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수입품목 수로 하면 209개이며, 어종으로 하면 74종이다.

정부는 또한 8개 현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도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평양에서 태극기 펼리이고 애국가 울린다

북 ‘亞클럽 역도대회’ 첫 허용

광주은행 등 선수단 41명 방북

북한 평양에서 태극기가 펼리이고 애국가 연주되는 장면을 사상 처음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평양에서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에서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북측 지역에서의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를 허용할 뜻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처럼 북한이 선수단의 신변안전 보장과 함께 이들 두 사안에 대한 입장장을 밝혀온데 따라 통일부는 이날

한국 선수단 41명(선수 22명·임원 19명)의 방북을 승인했다.

12~17일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북한, 중국 등 아시아 15개국 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한국 역도 선수는 북한에서 열리는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는 보성군청 역도팀(감독 김용철)과 광주은행(감독 고광구)을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청, 수원시청, 충남 아산시청, 전북 하이트진로, 강원도 양구군청 등 7개 실업팀 험선수와 일원들이 참가한다.

한국 선수단은 국가대표인 수원시청 천정평(남자 85kg) 외에 보성군청 문운현(여자 75kg급), 광주은행 이애라(여자 75kg급)·추진리(여자 58kg급)·김성희(남자 62kg급) 등 뛰어난 실력을 지닌 선수로 구성됐다. 김용철 한국실업 역도팀 감독(사보성군청 역도팀 감독)은 “이번 스포츠교류를 통해 최근 냉각된 남북 관계 화해무드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역도선수단은 10일 오전 김포 공항에서 발대식을 연 후 출발해 베이징을 거쳐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한다. 11일 개회식으로 대회 일정을 시작하는 선수단은 17일 폐막연회를 마치고 18일 평양을 떠나 중국 선양을 거쳐 18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

### 201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수시 1차모집]

원서접수: 9월4일(수)~13일(금)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신성자동차㈜

www.gi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주유비 지원 100만원

문의: 062)226-0001

Mercedes-Benz

www.eodeungsancc.com

광주시내 전경을 바라보며 야간라운드를 즐겨보십시오!!

# 비즈니스회원 모집

## 어등산CC 주중회원 모집

</